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 - 세가지

WELCOME
마음을 여는 대화

친교부장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때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살면서 내 능력이 한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거나, 중요한 일과 역할을 맡겨주어 벅찬 책임감과 고마움을 느꼈던 경험이 있나요? 혹은 나를 '동역자'로 대우하며 함께 짐을 져준 누군가 덕분에 위기를 극복했던 따뜻한 기억이 있다면 편안하게 나누어 봅시다.

WORSHIP
마음을 드리는 찬양

찬양부장

〈 금주의 찬양 :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

찬송가 :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새찬송가 331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새찬송가 325장)

복음성가 악보는 뒷면에 있습니다.

WORD Ⅰ
말씀 나눔

고린도전서 4장 1~2절 (신약 266면) 목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전 4:1-2)

WORD Ⅱ
은혜 나눔

전도부장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나누는 시간

1. 세상은 뛰어난 능력과 화려한 스펙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부족한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이 은혜가 내 삶에 어떤 위로가 되는지 나누어 봅시다. 또한 현재 나의 일터나 가정,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새롭게 회복해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2.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 생명의 복음, 곧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부르며,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단 한 가지는 '충성'이라고 강조합니다(고전 4:1-2).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맡겨주신 역할(영혼 구원, 직분, 가정의 영적 제사장 등) 앞에서 나는 지금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서로의 삶과 결단을 나누어 봅시다.

WORK
기도와 돌봄으로 섬김

기도부장

목장 내에 서로 살피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나누며

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과 직분, 가정과 일터에서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목장과 가정을 위한 기도: 서로 기도 제목들을 나눈 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소식나눔(주보참고) : 비전부장

'주기도문'으로 목장모임을 마칩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부제 : MARANATHA)

